

## 철도터널 방수공법 등 설계기준 개선 예산절감 기여

- 공단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 성과 가시화 -

공단은 철도터널 입·출구부 슈트방수공법을 아스팔트 방수공법으로 변경하고 전차선로 급전 케이블 접속간격을 연장시키는 등 설계기준을 개선하여 시공능률 향상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설계기준 개정 내용은 ▲철도터널 공사시 입·출구부는 지하수 및 지표수의 영향이 적어도도 그간 슈트방수(슈트방수(2mm)+방수 보호재(30mm))공법을 적용하던 것을 아스팔트방수공법(2mm)으로 변경하여 시공성 향상 및 사업비 절감(137만원/m당) ▲터널에 설치 하는 전차선로 급전케이블의 접속간격을 400m에서 600m이상으로 연장시켜 접속개소 감축에 따른 접속재 설치비 30% 절감 등이다.

석중근 설계기준처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설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소중한 국가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과잉설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작년 12월초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를 6대 경영방침의 하나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철도건설기준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불합리한 설계기준에 대한 현장의 소리(VOC)를 발굴,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가동해 왔다.

### 설계기준 개선 사례

※ 터널 입·출구 방수공법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
개요도 (측면)		
(정면)		
형상	슈트방수(방수슈트+방수보호재)	아스팔트방수(아스팔트 도포)

\* 방수보호재 : 2종류(보호벽돌, 폴리에틸렌 발포단열제)

\* 방수슈트 : 3종류(ECB(에틸렌헥센성중합슈트), 아스팔트슈트, 투명슈트)

## 공단, '11년도 기관운영비 260억원 절감

- 전사적 예산절약의식 확산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성과 -

공단은 '11년도 운영예산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예산 1,788억원 중 1,528억원을 집행하여 14.5%인 26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예산절감은 ▲조직개편에 따른 고위직 직위축소 등으로 인건비 51억원 ▲동절기 난방비 등 에너지 절감으로 경상경비 23억원 ▲행사규모 축소 및 자체 강사 활용 등으로 11억원 ▲사업성 없는 해외출장 억제 및 각종 용역 직접 수행으로 63억원 등 관리비 예산 148억원과 기타 예비비 38억원, 자체사업비 74억원 등 모두 260억원이다.

이와 같은 실적은 제2창립선언, 비전선포식 등 경영효율화 방침을 대내외에 선포한 이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궈낸 결과로써, 예산절감을 위한 전직원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행하는 한편, 예산담당자 워크숍 및 재무예산교육 시행 등 전사적 예산절약의식 확산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성과이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엘리베이터 감속운행, LED전등 교체, 피크타임 난방중단, 실내 기온온도 18℃ 유지 등 하리근을 동여매는 노력을 기울여 최근 전력소비량 급증 대비 정부 에너지 정책에도 적극 호응하였다.

공단은 금년에도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기관운영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해외공사용역수입 및 자산개발 등의 수익을 통해 공단의 부채감소를 위한 자구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수도권 철도 유휴부지 민간 개발제안 공모

- 공단, 40개소 43만㎡ 부지 대상 -

공단은 토지활용가치가 높은 수도권의 40개소 철도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에서 개발제안을 받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익창출을 늘리기로 하였다.

금번 유휴부지 개발제안 공모는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원선(8개소), 경의선(4개소), 경춘선(9개소) 등의 역이나 선로연변의 철도부지 총 40개소, 면적 43만㎡로 개소당 규모는 최대 130,700㎡~최소 200㎡로 유통업체, 외식업체, 상가, 화물 적치장 등 활용측면에서 선택폭이 크고 접근성도 뛰어난 토지가 대상이다.

공단은 대상부지 일체를 3월 7일부터 홈페이지(www.kr.or.kr)에 공개하고 있으며, 3월 12일 오후 2시에는 서울(서부)역에 소재한 공단 수도권본부 4

층에서 철도부지 개발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희망자가 대상부지 현장설명을 요청하면 공단직원이 안내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부지에 대한 개발제안 공모접수는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업개요서를 공단 본사 자산개발사업처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금번 공모를 시작으로 4월에는 충청, 영남 등 타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수도권 철도부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단 본사 자산개발사업처(자산개발운영부, ☎042-607-4222~3)로 문의하면 된다.

### 민간요구형 개발제안 공모 대상부지 현황

선명	개소	면적(㎡)		소재 지역
		계	최대~최소	
경원선	8	38,604	23,800~1,000	양주시(7),연천군(1)
경의선	4	14,500	10,800~200	서대문구(1),고양시(2),파주시(1)
경춘선	9	76,009	38,669~1,382	춘천시(4),남양주시(4),가평군(1)
중앙선	5	41,592	16,73~12,797	남양주시(3),구리시(1),원주시(1)
경부선 등	6	81,344	65,735~1,728	안산시(1),수원시(2),평택시(2),강남구(1)
수인선	4	42,276	576~35,500	인천시(4)
용산선 등	4	138,900	1,200~130,700	용산구(1),고양시(1),의정부시(1),구리시(1)
계	40	433,225		

## 기술본부 전기·궤도분야 2조 1028억원 발주

- 중소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기술본부는 금년도에 호남고속철도 전기·궤도공사 등 공사 83건, 용역 102건, 구매 140건 등 총 325건에 2조 1,028억원 규모의 계약을 신규 발주한다.

사업별로는 호남고속철도 등 고속철도 3개 사업에 1조 7,388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일반철도 18개 사업에 2,228억원, 수원~인천 복선전철 등 광역철도 5개 사업에 962억원, 경춘선 별내역 신설 등 7개 수탁사업에 461억원 등이다.

금년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궤도분야의 발주

규모 2조 1,028억원은 전년도 3,559억원보다 6배나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철전력처(처장 김상태)는 전기분야의 송변전, 전차선, 전력설비 별로 분리하여 발주하던 감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고, 아울러 기술본부의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4건과 감리용역 13건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국가예산 107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기술본부 성동일 기자)

### '12년도 전기·궤도분야 사업별 발주현황

발주사업명	사업비(억원)	발주시기
호남고속철도 전기·궤도공사	12,224	3월, 7월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통신·궤도공사	733	7월, 9월
수도권고속철도 전기공사	4,420	7월, 11월
부산~울산 등 일반철도 18개 사업 전기·궤도공사	2,228	3월, 5월, 10월
수원~인천 등 광역철도 5개 사업 전기·궤도공사	962	7월
경춘선 별내역 등 수탁 7개 사업 전기공사	461	6월, 10월
합계	21,028	

## 호남고속철도차량 도입사업 착수 및 품질개선대책 보고회 개최

기술본부 차량처(처장 김우식)는 지난 2월 29일 호남고속철도 고속차량도입사업 착수 및 품질개선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공단에서 처음으로 발주하는 고속차량 도입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보고회는 부이사장 주관으로 관련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하여 성공적인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심층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차량제작관련 시설물과의 인터페

이스 확보방안, 기존 KTX-산천의 문제점 및 조치현황, 호남고속철도차량 품질개선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호남고속차량 설계 및 제작시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차량을 제작할 계획이다.

호남고속철도차량은 총 22편성(220량, 7,360억원)으로, 지난 2월17일 현대로템(주)과 2014년 말까지 15편성, 2015년 6월까지 7편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술본부 최환침 기자)



## '12년 제1차 KOICA 특별(무상) 교육 시행

- ODA 사업관련 전문 역량 강화 기회 마련 -

시설사업본부 해외철도사업처(처장 오재욱)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기초 직무지식 배양을 통하여 신규 해외철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제1차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특별(무상)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 KOICA 사업 유형과 실행체계(강사: KOICA 중동중남미 김동호 부장) ▲ 개발협력 사업관리와 PMC의 역할(강사: KOICA ODA 교육팀 조광걸 팀장) ▲ KOICA PMC용역을 수주한 바 있으며, ODA 사업 다문화와 국제개발협력(강사: KOICA 연수사업부 신소연 대리) 등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KOICA의 현황 및 사업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특히 '11년 공단이 수주한 파라과이 PMC 용역의 담당부장이 직접 공단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KOICA 사업 전문가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기회도 마련하게 되었다.

공단은 작년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등 총 3건의



이제 해외철도사업처는 직원의 관련 전문지식 향상에 기여코자 이번 교육을 기획하였으며, 이번 1차 교육에 이어 2차례 추가 심화교육을 시행하여 ODA 사업에 관한 직원 전문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설사업본부 이민은 기자)